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국내 첫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첫 삽'

부안군 신재생에너지단지서 착공식 열려
부안형 수소도시에 친환경 청정수소 공급
탄소중립 기여 등 수소경제 이행 촉진 기폭제

전북자치도와 부안군이 국내 첫 상업용 수전해 수소 생산기지 건설의 첫 삽을 뜬다.

30일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착공식이 열렸다.

착공식에는 박한서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권익현 부안군수, 나인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경제위원장, 김원진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등 관계 기관과 참여기업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부안 수소생산기지는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설비 기반 수소생산시설로,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수소 생산이 가능한 시설이다.

도가 지난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재)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현대건

설(주), 한국수력원자력(주), (주)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 (주)테크로스환경서비스 4개 기업이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3년동안 총사업비 120억원(국비 54.3, 도비 10, 군비 20, 민간 35.4)을 투입해 2.5MW 용량의 수전해 설비와, 생산한 수소를 압축(250bar)해 반출하는 출하설비 등으로 구성된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2025년 하반기에는 하루 1톤의 수소를 생산해 부안군의 수소충전소와 신재생에너지단지의 연구시설 등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수소 1톤은 수소용량(네소) 200대 (5kg 충전 기준)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다.

부안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는 상업용으로는 국내 최초, 최대규모의 청정수소 생산기지로, 올해부터 추진 중인 부안형 수소도시에 친환경 청정 수소를 공급하며 대기환경 개선 및 탄

소중립에 기여하는 등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에서 △현대건설은 총괄설계(기본·상세설계), 기자재 구매 및 시공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수전해설비 안전관리계획과 본 사업의 경제성 검토, 수익모델을 전담하고 있다. △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환경서비스는 수자원 분야 전문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수소 출하설비와 수처리 설비, 시운전을 맡아 추진 중에 있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과 같은 수소생산·공급시설과 인프라를 꾸준히 확보하여 수소산업을 전북의 미래먹거리로 육성하겠다"며,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미래를 전북특별자치도가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 수소생산기지를 중심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자립 부안형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국내 외에서 모범이 되는 사례로 만들어 가겠다"라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부안=김석진 기자



30일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박한서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권익현 부안군수, 나인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경제위원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착공식이 열렸다.

전북, 내년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선정

부안 위도면 진리권역... 총사업비 67억원 확보

전북특별자치도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5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에 부안군 위도면 진리권역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낙후된 정주 여건을 개선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촌지역 발전을 도모

하는 사업이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된 19개소에 대해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심사와 현장·발표 평가(도 1차, 해수부 2차)를 거쳐 최종 9개소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진리권역은 부안군 위도면 중심지여서 다른 공모사업들이 중심지 아닌 곳으로 집중되다 보니 오히려 소외 받는 마을이었으나,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내년부터 5년간 67억 원(국비 70%, 지방비 30%)이 투입될 계획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수산물 공동작업장 정비, 진리 해양경관 정원 조성, 어촌회관 및 여자경로당 리모델링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문화복지,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클린 마을 조성, 경제 활성화 컨설팅 등을 통해서 지역 역량 강화 등에도 힘을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탄소중립 공감대 확산

전북자치도, 6월 5일 환경의 날 맞아
내달 2~7일 사생대회 등 행사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6월 5일 제29회 환경의 날을 맞아 6월 2일부터 7일까지 도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탄소중립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

환경의 날은 1972년 제27차 유엔 총회에서 '유엔 인간환경회의' 개막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한 것에서 유래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정해 매년 그 뜻을 이어가고 있다.

6월 2일에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스티로아트 탄소 중립 사생대회'가 열린다. '스티로아트'란 폐스티로폼을 재활용하여 만든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한다. 대회는 전주시 건지산 편백나무숲에서 펼쳐지며, 학생, 학부모 등 약 300명이 참여한다.

4일에는 도청사에서 '제10차 전북 탄소중립 포럼'이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

기적응센터 홍재우 박사로부터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제4차 계획 준비'라는 주제의 발표를 듣고, 전북자치도의 대응 방향 및 신규 사업 발굴에 대해 참여자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한다.

특히, '환경의 날' 주간에 개최하는 포럼의 의의를 살려 14개 시·군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일선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5일 환경의 날 당일에는 '전북 천리길 플로깅 만보 걷기 캠페인'이 군산시 구슬피길에서 개최된다.

이밖에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063-280-7179) 등에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충북,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맞손'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등 공동 프로젝트 수행 첫 발 내디디며
경쟁 구도에서 상생 협력 관계로... 지역 강점·약점 상호 보완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가 산업부에서 공모 중인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고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디었다.

(관련사진 3면)

경쟁 구도에서 상생 협력 관계로 나아가 지역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상호 보완하는 등 첨단 산업인 바이오 분야에 대한 기술 우위 선점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30일 충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 분야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합동 TF 구성·운영 등 향후 양 도간 공동 협력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은 바이오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공동대응과 오가노이드 초격차 연구개발 관련 공

동 과제 기획·발굴, 양 지역의 바이오 소재·장비·인력양성 인프라 공동 활용 등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충북은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이 소재한 지역으로 첨단 의료 복합단지 및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등 바이오 클러스터가 조성돼 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북은 그린바이오 기반이 탄탄해 바이오 소재 DB와 비임상 분야 연구기관, 삼급병원 2개소가 위치해 향후 레드바이오로 확장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이다.

전북자치도와 충청도는 바이오 초광역 협의회 구성 및 협력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TF를 운영하는 등 정기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추진하며 정부의 첨단 바이오 육성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양 지역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게

되며 정부에서 바이오 특화단지를 공동 지정하는 경우, 국가 차원의 바이오 산업 시너지 또한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 의약품과 오르가노이드 2개 분야로 공모 중인 산업부의 바이오 특화단지는 전북과 충북을 비롯해 강원, 인천, 대전, 전남, 경북, 경기 등 총 11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상반기 중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과 충북은 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지속해서 소통해 왔다"라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마음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첨단기술 육성과 제조역량 확보로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특화단지 조성에 협력관계를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오늘 협약이 세계적인 수준의 바이오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다.

한국전력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수출국으로

원전, 에너지신산업, 신재생에너지까지
한국전력공사는 새로운 글로벌 성장동력으로
경영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

글로벌 에너지 리더 KEPCO 국가 미래 성장 기여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국민의 에너지에 한국전력

하루 1원 절약하기 01.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 1.08 kWh/달 0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 0.36 kWh/달 03. 세탁기 사용 시 세탁물은 모아서 사용하기 - 0.09 kWh/달